

한화그룹 3세 경영 체제 본격화

“김동관 에너지·김동원 금융·김동선 유통”

한화그룹의 3세 경영 체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에너지·석유화학·방산 등 주력 사업과 그룹 전반을 총괄하고,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금융 부문을,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라본부장이 유통·레저·호텔 사업을 맡는 방향으로 승계 구도가 정리되는 모양새다.

㉸한화 아래로 부문별 계열사 배치
김동관, 항공·방산 등 핵심사업 총괄
김동원, CGO 겸임…글로벌 강화
김동선은 한화갤러리아 상장 앞뒤

●장남은 부회장, 차남은 사장으로 승진

지난해 8월 김동관 부회장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1983년생인 김 부회장은 현재 한화솔루션 전라북도 대표이사과 한화 전략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함께 맡고 있다. 한화솔루션에서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항공, 방산, 우주 포트폴리오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 내 규셀 부문(태양광 사업 자회사)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태양광 시장에



한화그룹의 3세 경영 체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한화솔루션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라본부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화

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유력한 차기 총수로 꼽히고 있다.

1985년생인 김동원 사장은 금융업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생명 디지털 사업을 이끌며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라이프 플러스 사업’에서 두각을 보인 바 있다. 14일에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고, 신설된 최고글로벌책임자(CGO)를 겸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 신임 사장이 함께 회사를 이끄는 2인 체제로 전환됐다.

김 사장은 향후 최고글로벌책임자로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진두지휘한다. 한화생명은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등 3개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

이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 측은 “김동원 사장은 향후 CGO로서 다양한 글로벌 사업 추진과 기존 해외사업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성과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인적분할, 삼남도 독립 경영

1989년생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의 독립 경영도 가시화됐다. 한화솔루션이 1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갤러리아 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한화갤러리아가 2021년 4월 한화솔루션에 흡수합병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이뤄진 인적분할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솔루션과 한화갤

러리아가 기존 주식을 9:1 비율로 갖게 됐다. 분할은 3월 1일, 재상장은 3월 31일에 진행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한화갤러리아는 지주사인 ㈜한화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포지션닝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각자 맡은 부문별 계열사가 ㈜한화 아래 병렬구조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독립경영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를 이끌 김 본부장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 상장 이후 확보된 투자금을 통해 기존 한화갤러리아가 추구하던 프리미엄 리테일은 더욱 강화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를 국내에 들여오는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전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3대 버거 브랜드 ‘파이브 가이즈’의 국내 도입을 성사시킨 바 있다. 초기 기획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하반기에는 한화가 운영하는 스페인 세비야의 이베리코 농장에서 사육 중인 100% 순종 이베리코 흑돼지를 활용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강한 프리미엄 먹거리’를 국내시장에 적극 들여오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통사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3월 한달 동안 데이터 추가 제공

SKT·KT, 30GB 추가…LGU+는 기존 데이터량 2배

이동통신 3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SK텔레콤은 3월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 단 19세 이상 3G, LTE, 5G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특별한 신청이나 절차 필요없이 사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외에 추가로 30GB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HD급 고품질 동영상 30시간 가까이 볼 수 있는 용량이다. SK텔레콤은 무료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용 방법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이 달 내로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KT도 3월 한달 동안 데이터 무료제공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 제공된다. 데이터 이용 시 무료 데이터가 자동으로 먼저 소진되며, 무료 데이터를 다 쓴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가 차감된다. KT는 데이터 무료제공 프로모션 대상 고객에게 28일 이전에 문자를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해 최대 2배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데이터가 충분한 ‘5G·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나 100GB이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스탠다드’, ‘매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 가입 고객은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에 접속한 뒤 등록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세븐일레븐, 가수 임창정과 ‘소주한잔’ 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22일 가수 임창정과 손잡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인 ‘소주한잔(375ml, 1만4900원·사진)’을 선보인다. 국내산 쌀을 사용했으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감압 증류 방식으로 제조해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고소한 견과류의 풍미와 함께 누룩향과 향긋한 바닐라향도 느낄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23도다. 주류 시장의 트렌드 리더인 2030 MZ세대와 술에 진심인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르는 세대공감 술이다. 병 디자인은 전통주를 연상시키는 갈색톤 유리병을 사용했으며, 라벨 디자인은 임창정 자필 글씨체를 사용했다. 병뚜껑에는 소주한잔 노래의 금영노래방 번호 9431을 새겨 넣어 MZ세대에게는 호기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시·관광재단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총력”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산업을 하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14일 ‘서울관광 재건 및 붐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생태계가 붕괴된 인바운드(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여행업체에 고용, 상품개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 관광 메가 이벤트 ‘서울 페스타 2023’을 개최해 서울 방문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뷰티, 미식, 한류 등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관광 콘텐츠화해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쓰는’ 고부가가치의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관광재단은 타깃 시장을 다변화해 서울의 신규 브랜드 론칭과 연계해 서울 관광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안내 체계, 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여 글로벌 수용 태세를 확립한다. 서울-지방 협력 통한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해 함께 성장하는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지원과 서울형 여행 바꾸어 지원도 확대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 선정

“여객과 화물산업 연결성 유지 노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항공 전문매체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ATW)로부터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탁월한 리더



십을 보여준 인물로 선정됐다.

ATW는 14일(현지시간) 조원태 회장을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Excellence

in Leadershi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TW는 1974년부터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항공사,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9년 취임 후 IATA 집행위원회 위원, 스카이트임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며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의 이번 수상으로 2021년 올해의 항공사상, 2022년 올해의

화물항공사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세계적인 권위의 ATW의 상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항공은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에서도 여객과 화물산업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 임직원들을 대표해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아이오닉5, 차문 열면 P단 풀려”…현대차·폭스바겐 등 9만 여대 ‘리콜’

(주차브레이크)

아이오닉5, 23일부터 무상수리 가능
폭스바겐 16개 차종, 엔진 출력 이상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9만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판매한 아이오닉5 5만1471대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돼 경사지에 주차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3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



■ 대상 자동차 (아이오닉5)



■ 결함장치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현대차 아이오닉5(왼쪽)와 문제가 된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 현대차 외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BMW코리아 등 33개 차종 9만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조사 리콜을 진행한다.

3만4216대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는 브레이크 제어장

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와 자동차안정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도요타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397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BMW 코리아의 740i 등 3개 차종 1487대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끌러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비엔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